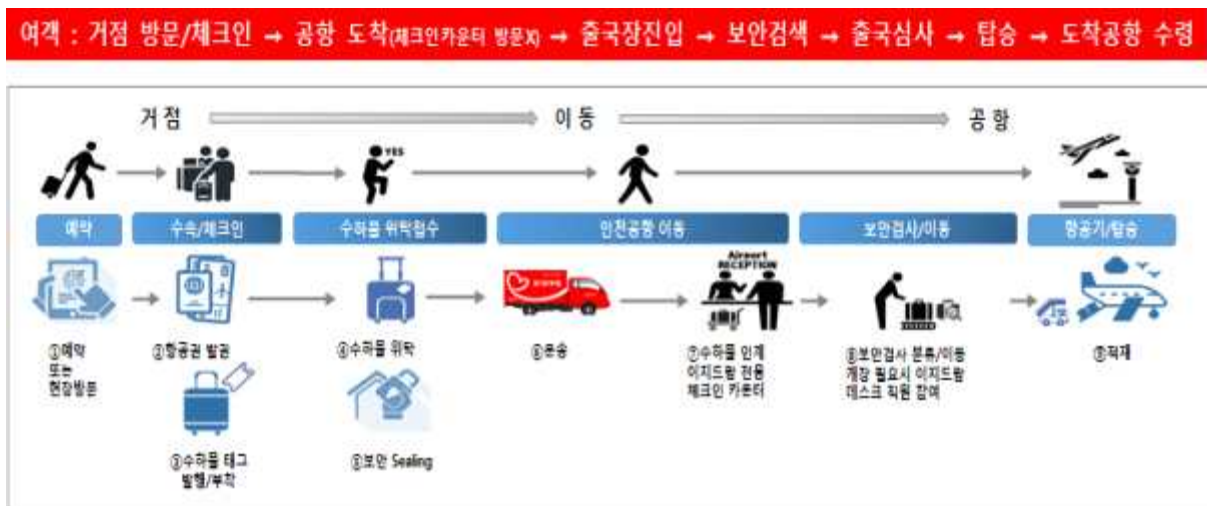


서울 명동·강남에서 짐 부치고 빈손으로 인천공항 간다

- 도심 속 빈손여행 서비스 확대... 현재 홍대·인천 → 명동·강남으로 확대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와 인천국제공항공사(사장 이학재)는 여행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‘이지드랍(Easy Drop) 서비스’를 서울 명동과 강남으로 확대한다.
- 이 서비스는 공항이 아닌 장소에서 수하물을 미리 위탁하고 해외 도착지 공항에서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.



- 현재 이지드랍 서비스는 대한항공, 아시아나, 제주항공, 티웨이항공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으며, 서비스 지점은 '10년 도심공항터미널을 시작으로 홍대(홀리데이인 익스프레스 호텔, '23.12월)·인천(인스파이어 리조트, '24.6월 / 파라다이스시티 호텔, '24.11월)으로 확대해 왔다.
- 11월 28일 개장하는 명동 지점은 명동역 9번 출구 부근에 위치한 수하물 수속 전용 사무실이다. 기존과 달리 호텔이 아닌 독립 공간으로 운영되며, 이를 통해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내년 초, 압구정역과 신사역 인근의 호텔 및 레지던스 등 숙박시설 밀집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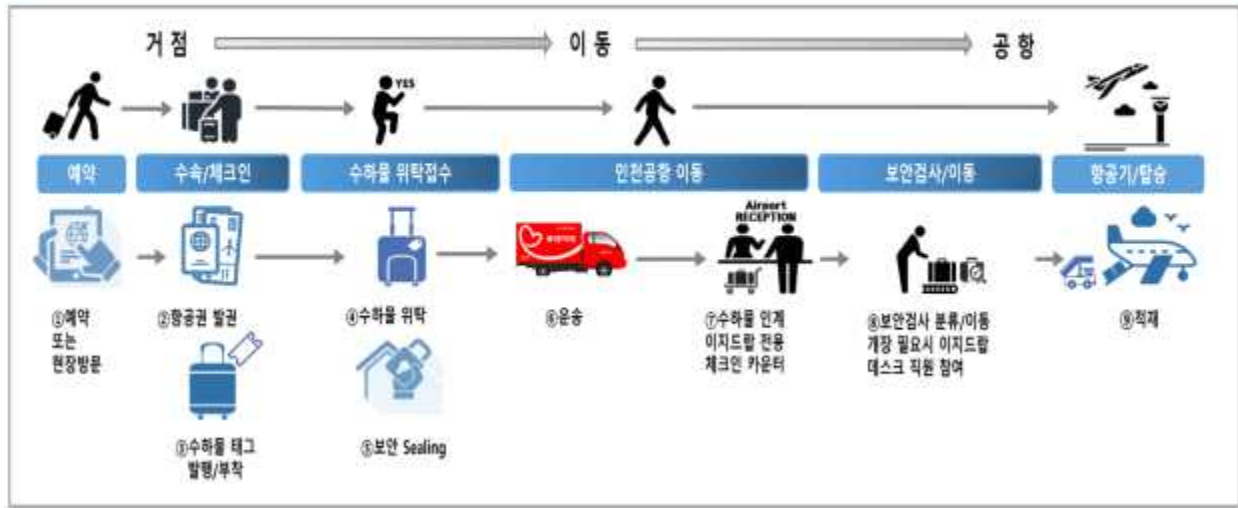
□ 국토교통부 안세희 항공보안정책과장은 “더 많은 여객이 편리하고 안전한 이지드랩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참여 항공사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도심내 거점을 늘려 나가면서, 수하물 운반·보관·탑재 등 모든 전 과정에서 빈틈없는 보안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공항정책관 항공보안정책과	책임자	과 장	안세희 (044-201-4232)
		담당자	사무관	이정윤 (044-201-4238)
		담당자	주무관	강호득 (044-201-4236)
	인천국제공항공사 스마트서비스팀	책임자	팀장	정지화 (032-741-5676)
		담당자	차장	황순일 (032-741-5732)

참고 1

빈손 여행(Easy Drop) 개념도

여객 : 거점 방문/체크인 → 공항 도착(체크인카운터 방문X) → 출국장진입 → 보안검색 → 출국심사 → 탑승 → 도착공항 수령



참고 2

빈손 여행(Easy Drop) 지점 위치 및 사진



인스파이어리조트(인천)



파라다이스시티(인천)



홀리데이인(홍대)



명동역